

[수협 캠페인 영상 _40초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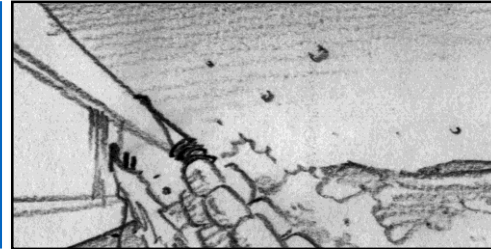
동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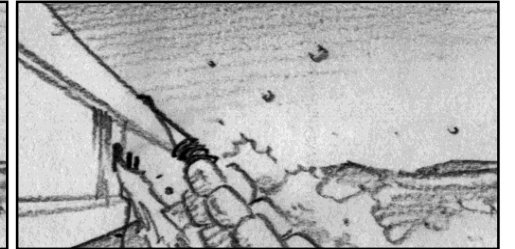
서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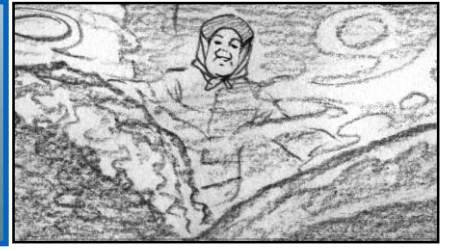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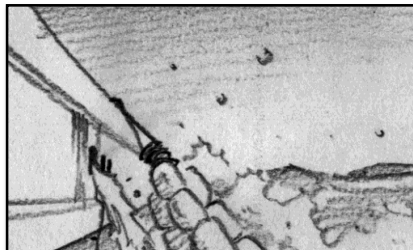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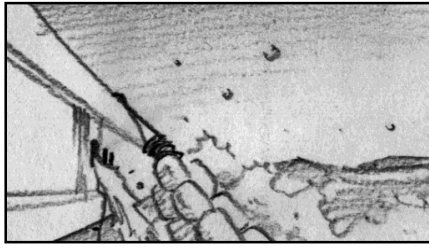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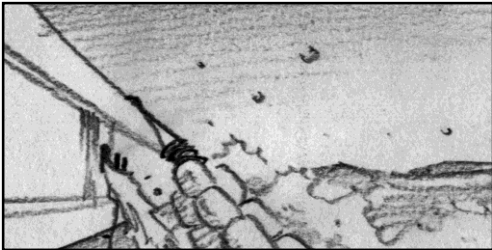
남해



우리 바다의 이름은



고작 3개이지만



그 안엔 100만 개의 이름이 더 있습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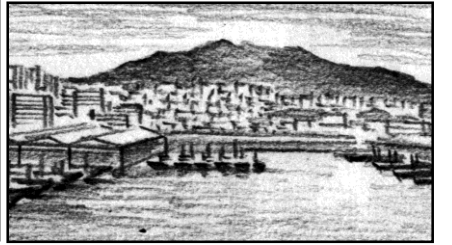
어업인1) 내 자식같이 키웠어라~
자막) 전복에게 친절하 금자씨



어업인2) 이 손 안 거친 놈 없수다게~
자막) 참돔 선생 김봉두



어업인3) 깨끗~한 게 실하지요?
자막) 광어 대장 김창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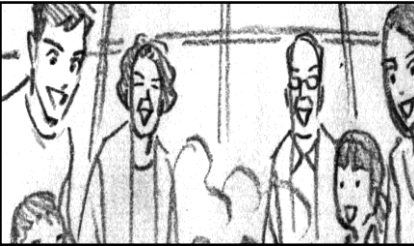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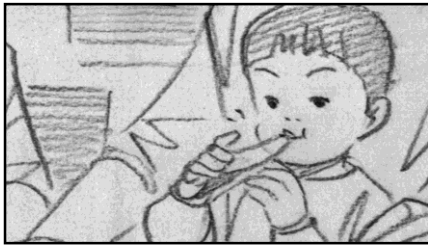


바다가 전부인 100만 수산인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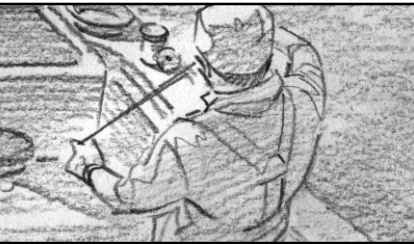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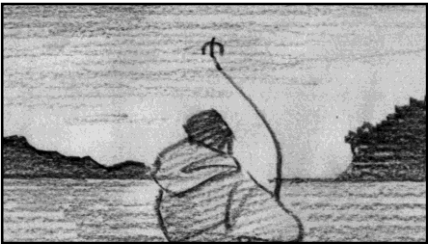


이름을 걸고 얻어낸 단 하나의 이름,

바로 [우리 수산물] 입니다



더 신선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



우리 바다가 키우고

어부의 이름으로 전합니다

자막) **진심을 담아** 이름에 담아

이 캠페인은
수협과 수협은행이 함께 합니다